

‘어제나 오늘이나’찬양 설명

작성일 : 2011. 1. 8. 토. 오후11:20

작성자 : 김기자

[주일 성서 구절을 여러 번 읽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만 선명히 들렸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란다.”하셨고
저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라고 여쭙었습니다.
주님은 모습을 보이시고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머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은 주 심장을 지니고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을 만난다면
그 어떤 생명들도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데려올 수가 있노라.
잘하였다.
하나님의 영광 주간 절기에
매일 갖가지 다양한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랑 신부에게 내 심정 전하여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이끌어오는 이 일이야말로
아주 크게 합당하게 영광 돌린 것이다.
잘하였도다.

(주님이 자꾸 잘하였다고 칭찬하시기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있던 자들과 섭리에 있지만 주님과 어긋나게
사는 생명 등 약속을 잡은 게 아닌데 연락이 급히
와서 3명을 동시에 시간별로 계속 만나게 되었는데
잘 대화를 해서 다시 교회로 돌렸고 새벽부터
회개와 조건 기도를 쌓을 수 있게 자연스럽게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생명을 만날 때
주님이 자리에 함께 서 계시거나 앉아서 안타까움
을
호소하셔서 지혜롭게 주님 심정 따라서 열심히 간
구하며
생명을 붙들며 여러 가지 단상 말씀을 전해주고
주님 사랑을 전해주고, 섭리역사의 귀함에
핵심은 선생님이 천국 키라는 것을 전해주시니
생명들이 서서히 흑암이 걷히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걸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어서시기에 벌써 가시나 생각하고
저는 “주님 가시기 전 찬양 선물 하나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주님을 앉게 했습니다.
요즘 수시로 자주 부르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해 드리려고 악보를 펴서 품을 잡고 섰더니
주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부를 거지?”라고 하셔서
순간 당황되어 저는 얼른 어제나 오늘이나 가사를
펼쳐
“아.. 예.. 어제나 오늘이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미소 지으시며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 감상을 하시려고 계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4절까지 한 번 다 부르고 앉으려
고 하자
주님은 부드럽게 “응, 다시”라고 하셔서 다시 불렀
습니다.
찬양을 다 하자 주님이
“내가 한 절씩 가사 설명해 줄 테니 적어봐.
네가 한 절씩 찬양하면 내가 한 절씩 설명 붙일게”
라고 하셔서 저는 앞드려 찬양 한 절 하고
주님 말씀 기록하고 또 말씀 끝나면
그 다음 찬양 한 절 하고 주님 말씀 기록했습니다.
)

1. * 어제나 오늘이나 어데를 가든지
기도와 찬양과 생명의 말씀이다.

기도와 찬양, 말씀은 신앙의 기본이다.
기본이 없으면 바로 사망줄 잡고
사탄에게 끌려가 버리게 된다.
기본이 없으면 어려움에서 응용할 수가 없고
기본이 없으면 그 위에 멋진 집이든
어떤 아무것도 지을 수도 구상해 놓을 수도 없다.

* 감사와 충성과 은혜와 진리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감동이다.

성령이 충만해야 감사가 오고
성령이 충만해야 충성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진리를 외칠 수 있다.

2. *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최우선 순에 놓고 살아라.

주를 최우선 순에 놓고 사는 정신이
완전한 신부 정신이다.
신부 정신에 주가 첫 번째가 아니면
좋이다 좋!
신부 정신은 신랑이 먼저지.
그러니 주 예수가 너희 신부 정신에
꼭 박혀 있어야 내 신부라 할 수 있지.

* 사랑은 오직 주님과 나뿐이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매일 매 순간 화답하라.
인정하라.
사랑은 오직 너와 나뿐인걸 잊지 말라.
나와 너만 사랑이지
그 외는 다 헛되고 헛된 사랑임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만
네 사랑으로 인정하고 품으라.

3. *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과 형제들 사랑이다

주 예수를 사랑하면
당연히 주사랑, 주 정신으로
네가 또 다른 내 신부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성령의 핵심이 사랑이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은 영육 사랑이요,
하늘과 땅의 사랑이니라.
하늘은 하나님이요,
땅은 너희 형제니라.
나를 사랑함은 곧 형제자매도
사랑한다는 의미니라.
나만 사랑하면 반쪽 사랑이니
나를 사랑함 같이 네 이웃 형제자매도 사랑하라.

* 생명은 구원이다 말씀과 관리다
믿음은 실천이다 표적이 일어난다

가장 강조하고 또 해도 완전한 진리 가사다.
내가 왜 왔겠느냐?

내 신부들 구원하러 온 것이잖느냐.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나?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 길을 찾을 수가 있느니라.
참 진리의 말씀만이 사망에서
생명권 구원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진리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도 오고, 믿음이 와야
실천도 할 수 있잖느냐!
다 연결 연결 말씀이다.
실천, 움직여야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않겠느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로 너희도 절대적 믿음 사랑으로 더 행하라.
완전한 진리 말씀에 감사하고
그 완전한 말씀에 완전한 믿음으로 행해야
완전한 대 역사의 표적이 일어나느니라.

4. * 오 주님 나 이제 세상 모두 끊어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만 위해 살게요

정녕 그렇게 할 것이냐?

(“아멘”)

* 주님 말씀 순종하며 예비하고 있을 테니
나를 꼭 데려가 주세요 사랑해요

주만 위해 살고 주만 사랑하고 살면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
나를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느니라.
나도 사랑한다.
난 완전한 신부만을 취하고
완전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노래는 섭리사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이룬 당부의 말씀들이니
한 마디 한 마디 생활 지침이 되어
더 이상적인 삶으로 갈 수 있게
꼭 실천하여 입으로 흥얼거리며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유혹이 올 때
꼭 ‘어제나 오늘이나’ 찬양을 생각하며
이겨 나가도록 하자.
사랑하고 사랑해서

당부하고 가노라.
사랑해.